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

산업정책 운용의 한계설정

96년부터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자유화될 전망이다.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4월1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인연찬회에서 「참여와 창의의 산업발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각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주요 업종에 대한 장기비젼을 제시해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석유화학산업 및 발전설비산업에 대한 신규진입 제한을 94년 12월말로 종료할 계획이며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조만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현재 석유사업법에 의거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석유산업의 진입제한 문제도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술도입신고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혀, 기술도입과 관련한 제도정비 및 규제완화는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장관이 밝힌 「1996년이후 석유화학 및 석유산업에 대한 신규참여 및 신규투자의 자유화」문제는 지난 7~8년동안 상공부 및 동력자원부가 매년 실시를 약속했던 정책으로 지금까지 법적인 장치도 없이 편법으로 기업의 신규투자를 규제해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발언으로 이해되고 있다.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규제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설비의 신증설 및 기술도입이 허가제로 묶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동력자원부(현 통산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석유산업의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후 정제설비 신증설 및 신규진입을 자유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7~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00년을 코앞에 둔 95년 들어서도 이같은 자유화정책이 또다시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석유산업 관계전문가들은 박장관의 이같은 자유화정책이 정작 시행될 것으로 믿지 않을 것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적 정책제시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석유정제설비 투자에 대한 자유화는 고사하고 석유제품 유통업이나 수출입, 주유소 거리제한 해제 및 폴사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및 규제철폐가 아직까지도 정착되지 못하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박장관 개인의 산업투자 및 기업운영에 대한 규제철폐 및 자유화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관료주의나 정치적 요소 등 갖가지 장벽을 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는 관계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지난 몇년 동안의 「지켜지지 않을 정책」제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료조직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작업 및 관료정신의 혁신없이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인 마수가 산업정책에 끼어들게 되면 만사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가 아니었던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신규참여 및 투자규제는 더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지난 87년 「석유화학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공업발전법」을 제정,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신규참여 및 신증설 투자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상공부(현 통산부)는 88년 삼성·현대의 신규참여 이전부터 행정지도라는 미명아래 기업들의 투자 및 기술도입을 규제하고 제한해 왔으며, 정치적 판단 및 관료주의적·이익집단적 판단에 의거해 불공평한 행정지도 및 투자허가를 지속해왔었다.
이 결과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91~94년 3년동안 1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감수해야 했고, 현재 호황국면이라고는 하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는 3~4년동안 현재와 같은 호황세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박장관이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대규모 투자로 과잉투자문제가 제기될 경우 업종별 산업발전민간협의회에서 기업간 협의를 통해 조정을 유도하고 공업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점도 관례에 비추어 효율성 및 「자율에 대한 규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의문이 제기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산업정책은 계획의 입안과 발표도 좋지만, 정확하고 공평한 시행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런지…

<화학저널 1995/4/24>